

(필리핀) 9월 현지 관광정책 및 시장동향

'26. 9. 30.(수) / 마닐라지사

- ◆ 필리핀 관광부, 관광의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정책성과 관리 확대
- ◆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, 사증 지정여행사 최종 선정 발표
- ◆ 필리핀 여행업계, 10월 이후 방한상품 판매 긍정적 전망
- ◆ '제주항공, 12월 마닐라-부산 노선 신규 취항' 등 필리핀-주요 국가 간 항공연결성 확대

1. 관광정책 동향

○ 필리핀 관광부, 투자·관광수입 등 경제효과 중심으로 정책성과 관리 강화

- 필리핀 관광부(DOT)는 관광객 수 뿐 아니라 투자·관광수입·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경제효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관광정책의 성과관점을 확대함. 실제로 2026년 1월~8월까지 관광 관련 투자 등록규모는 46억 3천만 페소(한화 약 1천억 원)로 2025년 연간 규모의 80.6%에 달함. 금년 투자는 주로 호텔, 웰니스 시설, 농촌 관광시설 등에 집중되었으며, 관련 사업을 통해 약 5백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.
- 한편, 필리핀 입국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집계 방식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. 최근 필리핀 관광부는 E-트래블(필리핀 전자입국 신고 시스템) 기록과 이민국 출입국 자료를 연계해 2026년 1~8월 방필 관광객 수 발표치를 기존 411만 명에서 442만 명으로 상향 조정함. 아울러 9월 관광부는 공식 누리집 내 '필리핀 관광데이터 대시보드'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관광통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.

2. 여행업계 동향

○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, 사증 지정여행사 최종 선정 발표

-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 사증(비자) 신청 대행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진행했고, 심사를 거쳐 9월 29일 최종 사증 지정여행사를 공고함

- 비자 신청 실적 및 한국 관광 상품 판매성과, 사증신청 처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55개사를 지정여행사로 선정함. 신규 지정 여행사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사증신청 대행 업무를 시작 예정

○ 필리핀 여행업계, 10월 이후 방한상품 판매 호조세 지속 전망

- 현지 주요 여행업계에 따르면, 9월 방한상품 판매 실적은 8월 대비 10~2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실적 증가세의 주요 요인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개별자유여행(FIT) 맞춤형 상품 및 여가, 휴식 목적의 방한단체관광에 대한 수요 확대와 함께 최근 방한 항공, 숙박 등 각종 프로모션 역시 실적 견인 요인으로 언급됨. 10월부터는 본격적인 해외여행 성수기*에 진입하면서 방한 관광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
- * 필리핀은 3~4월 부활절 주간과 더불어 10~12월이 해외여행 최대 성수기로, 특히 9~12월 영어명칭이 '-ber'로 끝나는 4개월을 '버먼스(ber-months)'로 칭함.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기간은 소비 심리가 극대화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집중
- 또한 필리핀 제조업 및 금융업 등 현지 주요기업 중대형 인센티브 단체의 한국 방문이 10월 중 연이어 예정되어 있으며, 전년대비 지속 상승하는 인센티브 단체객 방한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가을 시즌 필리핀 방한 관광객 증가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
3. 항공업계 동향

○ 제주항공, 12월 마닐라-부산 노선 신규 취항 등 필리핀-주요 국가 간 항공연결성 확대

- 한국 저비용항공사(LCC) 제주항공은 오는 12월 마닐라-부산 노선을 신규 취항할 예정으로, 김해공항을 통한 필리핀 관광객의 부산, 경남, 경주 등 근접 경북권 유입 확대 및 지방관광 활성화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. 이에 마닐라지사는 제주항공과 협력하여 4분기 다양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, 10월 현지 여행업계 대상 공동 설명회 개최를 통해 연계 방한상품 개발 독려 및 지역 관광콘텐츠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임.
- 또한 Philippine Airlines은 9월 25일 오는 12월부터 마닐라와 인도의 주요도시인 뉴델리·뭄바이 등을 연결하는 신규 직항 노선 운항계획을 발표함. 또한 운항이 중단되었던 마닐라-두바이 직항노선을 10월 2일부로 재개할 예정에 있으며, 이와 연계하여 9월 23

일 항공권 기본운임 50% 할인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등, 중동 지역 여행수요의 빠른 회복을 겨냥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 중

4. 경쟁국 동향

○ 아시아 인접국 위주 필리핀 아웃바운드 증가 속, 경쟁국 필리핀 현지 마케팅 강화

- 싱가포르 관광청(STB)은 세계 자동차 경주 대회 F1 싱가포르 그랑프리 개최를 계기로 싱가포르 전역에서 10월 초 개최되는 관광프로그램인 ‘Grand Prix Season Singapore 2026(GPSS)’를 필리핀 관광객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함. 또한 대만 관광청은 기존 관광 캠페인 「Taiwan 100 Ways – Find Your Wave, Discover Your Way」의 후속 프로젝트로 「Taiwan Talks: Travel Taiwan, Film Your Way」를 발표하고 현지 유력 인플루언서를 활용 중심의 마케팅을 지속 전개하고 있음

※ '25년 대비 '26년 주요 국가 방문 필리핀 관광객 수

구분	한국	홍콩	대만	일본	싱가포르
'26년 7월	47,344	72,960	51,017	45,075	55,100
'25년 7월	41,692	94,753	48,159	47,366	62,380
성장률(전년比)	13.6%	-23.0%	5.9%	-4.8%	-11.7%

※ 자료 출처 : 필리핀 관광부 보도자료 등 뉴스 종합

[PIA - DOT charts a new Course for Philippine tourism growth \(9.28\)](#)

[BusinessMirror - Tieza: Tourism investments reach over ₱4.6B in January-August \(9.28\)](#)

[BusinessMirror - DOT revises tourism data, puts arrivals at 4.42 million in January-August 2026 \(9.22\)](#)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ph-ko/brd/m_3637/view.do?seq=1344634&page=1

<https://www.philippineairlines.com/ph/en/newsevent-listingpage/press-releases-statements/pal-to-launch-delhi-and-mumbai-services.html>

[Philippine Airlines - PAL Opens Flash Sale as Manila-Dubai Service Returns October 2 \(9.23\)](#)

[Grand Prix™ Season Singapore 2026 counts down to race weekend with new headliners and programme partners | Singapore Tourism Board](#)

[Taiwan Tourism Administration brings 'Taiwan Talks' to Manila on Oct. 3 - Philstar.com](#)

<https://datalab.visitkorea.or.kr/>

https://www.discoverhongkong.com/content/dam/dhk/intl/corporate/newsroom/tourism-statistics/2026/tourism_stat_07_2026.pdf

<https://stat.taiwan.net.tw/inboundSearch>

<https://statistics.jnto.go.jp/>

<https://stan.stb.gov.sg/>